

공간성을 메타언어로 한 신화텍스트 연구

－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를 대상으로

김신정*

【 차 례 】

- I. 서론
- II.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과 신화텍스트로의 대입 가능성
- III. 무속신화의 공간적 분할과 사이 공간의 역할
- IV. 결론 : 무속신화의 공간적 모델을 통해 본 신화적 사유

국문초록

공간성을 메타언어로 하여 신화텍스트를 분석하고 공간적 모델링을 통해 텍스트 기저에 있는 신화적 사유를 탐색하였다. 제주도 무속신화 텍스트인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을 위해 유리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 개념을 원용하였다. 신화텍스트는 내부 영역, 외부 영역, 사이공간으로 구성된다.

텍스트의 공간적 분할을 위해 우선 신화 속 주체들에 발화·행위·장소·이동 양상을 결합하여 공간성을 부여하였다. <삼공본풀이>의 가문장 아기는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경계로서 기능하며, 외부 영역과 결합된 존재로서 외부 영역의 가치로 내부 영역을 포섭한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사이에서 이동을 반복하며 사이공간을 만드는 데, ‘반복’은 곧 내부 영역의 질서에 의한 주변화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화의 거듭을 통해 결국 외부 영역으로 도달하며 외부 영역과 결합된 존재로서 외부 영역의 가치로 내부 영역을 포섭한다. <삼승할망본풀이>의 두 주체인 동해용왕 할머니와 멧진국 따님아기는 원래 외부영역에 속한 자 이지만, 내부영역과 결합하여 내부영역의 가치체계로 외부영역을 포섭한다.

* 서강대학교.

<삼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는 평범한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으로 좌정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 문화의 기원과 원리를 풀어내며 초월적 신의 가치체계와 자연의 섭리를 드러냈다. 반면, <삼승할망본풀이>의 두 주체는 모두 ‘불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등장, ‘꽃 피우기’를 하며 싸우고 타협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 문화의 기원과 원리를 풀어낸다는 점에서 인간 세계의 질서와 가치체계 안에서 신의 모습을 구성해냈다는 차이가 있다.

무속신화텍스트를 구성하는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의 관계는 ‘문화와 반문화’ 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고, ‘문화와 비문화’관계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신화는 하나의 기원으로서가 아니라 변이형들과의 관계망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신에 대한 인간적 상상력은 이렇게 서로 다른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열쇠어 : 무속신화, 공간적 모델, 공간적 언어, 수행주체, 경계, 내부 영역, 외부 영역, 사이공간

I. 서론

신화텍스트는 건국을 비롯하여 세계창조, 문화창조의 기원과 형성원리를 다룬다. 신화텍스트 속에서 문화영웅들은 반신반인으로, 선과 악 중 뚜렷이 어느 한 가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없으며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로 그려진다. 그는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재치와 속임수를 통해서 난관을 극복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그 예로 건국신화의 경우 주몽·탈해가 있다. 창세신화의 경우에는 석가·미륵, 대별왕·소별왕이 짝을 이뤄 문화영웅의 양면성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한 인간이 살고 있는 장소는 그 곳에 속한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와 기능을 통해 정체성을 갖는다. 에드워드 랠프에 따르면, 장소는 위치나 외관적 특성으로만 규정되는 실체가 아니라 장소를 둘러싼 맥락들 예컨대 환경·경관을 비롯하여 그 장소에 대한 의식적인 체험과 경험 혹은 다른 장소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¹⁾ 그러므로 공간적 언어로 신화텍스트 읽기를 시도하는 것은 주요 인물의 행위와 사

건을 장소와 결합하여 이를 공간으로 인식하는, 공간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작업이다.

앞에서 말한 장소의 개념은 논의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 우선 구체적인 장소를 추상화한 개념인 ‘공간’과 ‘인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것으로, 공간은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과업이나 경험에 따라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공간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과의 ‘관계’속에서 의미화 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주인공의 행위와 이동, 장소의 결합을 통해 텍스트적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공간들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화텍스트를 공간적 언어로 분석한 기존 논의들을 참고 하였다. 이 논의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의미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공간으로 표상된 각 항들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들의 관계는 곧 신화텍스트라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계로 연결된다. 기존 논의들이 정리하고 있는 공간의 위계를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텍스트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인물에도 공간성을 부여하여 그의 이동에 따른 공간의 형성과 확장, 그로 인한 가치지향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신화를 공간적 언어로 분석한 기존 논의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연우는 <초공본풀이>의 텍스트적 공간을 일상적 삶의 장소들로 이루어진 수평축과 초월적 장소들로 이루어진 수직축이 교차되는 조직 체계로 읽어낸다. 양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행해지는 경험을 통해 인간은 현실의 모순을 이해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며 궁극적으로 지금의 삶을 더 잘 살아내도록 모범의 양식을 제공받는다고 해석한다.²⁾ 오세정은 신화 속 ‘바다’에 주목하여 수직축 끝의 하늘만큼이나 수평축 끝의

1) 에드워드 랩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77쪽.

2)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탐라문화』 3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85~110쪽 참고.

바다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신화적 공간으로 해석한다. 바다는 하늘 보다는 신성성이 약하지만, 인간세계보다는 문명화된 신의 공간이자 죽음과 재생이 이루어지는 매개공간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탈해신화>, <송당본풀이>, <칠성본풀이>, <심청무가>의 주인공들이 바다로의 이동을 통해 죽음과 동시에 재탄생하게 된다고 분석한다.³⁾ 황인순은 공간의 이동양상을 통해 서사무가가 가진 이중적인 서사적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의 공간을 이동하는 주체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여성적 주체의 통과제 의와 신적 주체의 통과제 의가 서로 교차하고 있음을 밝혀 신화적 공간은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항을 통합하고 있다고 본다.⁴⁾ 최성실은 ‘바리데기’의 서사구조 안에서 ‘버려진 아이’ 바리데기가 다녀오는 ‘저승’에 주목한다. ‘저승’을 푸코의 개념인 헤테로토피아에 대입하여, 이승의 규범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과 창조가 가능한 곳이자 바리데기가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재탄생의 공간으로 본다.⁵⁾

이처럼 공간성을 메타언어로 한 신화 연구는 텍스트적 세계를 신의 세계와 인간세계로 나누어 위계질서를 부여하고 있고 이 두 영역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 텍스트적 공간이 만들어진 위계는 그 사이를 이동하는 인간의 초월을 향한 욕망과 태생적 한계가 투영된 결과다. 바다나 저승 같은 구체적인 장소로서 나타나는 매개적 공간이 있을 수 있고, 수평축과 수직축의 교차지점에서 무언가를 경험하며 변화하는 인물이 가치를 만들어내며 스스로 매개적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기존 논의들은 이 매개공간에 대해 치유, 재생, 부활, 화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매개공간을 통해 인간은 성장하며 신과의 간극을

3)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311~334쪽 참고.

4) 황인순, 「제주도 본풀이의 공간구조와 의미연구 :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32, 한국기호학회, 2012, 85~114쪽 참고.

5) 최성실, 「동아시아 ‘바리데기’이야기의 구조와 공간적 의미에 관한 연구」, 『비교문학』 67, 한국비교문학회, 2015, 356~386쪽 참고.

매꾸게 된다. 본 연구는 공간성을 메타언어로 하여 무속 신화의 텍스트적 세계를 살펴봄, 공간들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구성하는 신화적 사유를 탐색한다.

분석을 위한 틀로서 유리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에의 대입은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사상가인 유리 로트만은, 문화는 자기기술을 통해 문화의 모습을 구조화하여 모델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형론의 총체가 문화기호학이라고 한 바 있다. 그는 문화를 자기기술할 메타언어의 하나로 ‘공간성’을 지목하였다. 쉽게 말해, 종교·정치·경제·사회 등의 개념 대입이 ‘공간적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이 추구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그 문화의 세계상과 문화가 역동하는 양상에 대한 포착이므로, 신화텍스트에 대한 공간적 모델링의 시도는 무속신화일반에 대한 한 이해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대상텍스트의 주요내용과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며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 개념이 신화텍스트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설명하고자 한다.

Ⅱ.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과 신화텍스트로의 대입 가능성

이 글은 다음 세 편의 무속신화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⁶⁾이다. 제주도 본풀이에는 여성신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간 여성신에 대한 연구는 역할이나 위상에 있어서 남성신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본토 무가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추출된 제주도 본풀이 속 여성신의 특징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면모가 돋

6) 이 논문의 연구대상텍스트로 삼은 무속신화텍스트는 모두 현용준, 현승환 역주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에 수록된 작품들이다.

보이고, 남성신보다 능력적으로 우월하며, 가정의 경제를 도맡아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리되고 있다.⁷⁾ 제주도 본풀이 속 여성신의 역할과 기능은 실제 제주도 여성들의 생활상과 유사하므로 제주도 본풀이는 여성문학으로서 의의가 있다고도 본다.⁸⁾ 그만큼 제주도 본풀이에서 여성신은 중요한 텍스트적 주체로 여겨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세 편의 텍스트도 여성신의 좌절을 그리고 있지만, 다른 제주도 본풀이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이 비교적 덜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남성과의 결합,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이나 희생, 남성신과의 대립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각 텍스트에서 여성은 각각 운명신, 풍요신,⁹⁾ 산신(産神)으로 좌절하며 그 과정에서 수행주체는 여성적 자질이 유효화된 상태가 아니라 ‘여기’밖의 존재, 즉 외부적 존재나 불완전한 존재로서 그려진다. 이러한 배타적 존재로서의 수행주체적 특징과 기능에 주목하여 세 편을 선정하였다.

이 세 편의 무속신화는 인물의 이동과 공간으로의 확장에 있어서 변별성을 지닌다. 각 텍스트 속 주체들은 각각 정방향적인 이동, 반복적인 움직임 끝에 정방향적인 이동, 역방향적인 이동을 보인다.

우선 각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수행주체와 주요사건을 소개하자면, <삼공본풀이>는 운명을 담당하는 전상신에 대한 이야기로, 수행주체로서 ‘가문장아기’는 누구 덕에 살게 되었느냐는 부모님의 질문에 ‘내 덕에 산다’고 답하고 쫓겨났다가 스스로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된 후 거지 잔치를 열어 부모님을 다시 찾는다. <세경본풀이>는 풍요신에 대한 이

7) 권태효, 「제주도 일반신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2011, 26쪽.

8)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39쪽.

9) “‘세경’은 물에서 일어나는 농경의 풍요만이 아니라 ‘바다밭’에서 잠수(潛嫂)들이 건져 올리는 풍요와도 관련되기도 한다. 바다 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이나 잠수굿에서도 ‘세경’에 대한 본풀이인 <세경본풀이>가 구연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위의 논문, 17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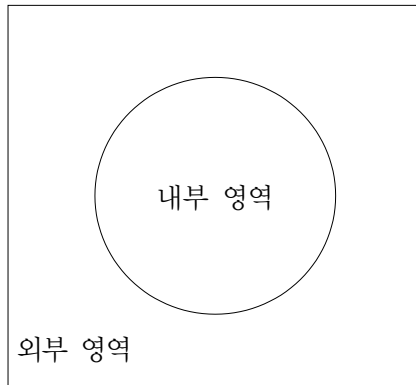
야기로, 수행주체로서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 글공부를 하고 여성과도 결혼을 하는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풍요신으로 좌정된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산신(産神)에 대한 이야기로, 두 수행주체인 동해용궁따님아기와 멧진국따님아기는 꽃피우기 내기를 겨루어 각각 이승의 산신과 저승의 산신이 된다.

여기서 ‘수행주체’는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이다. 로트만에 따르면, 수행주체는 ‘움직이는 인물’로서 움직이지 않은 인물에 대립된다. 움직이는 인물은 유일하게 텍스트적 세계 안의 두 영역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경계’가 되는 자이기도 하다. 또한 경계는 경계이월성을 전제로 한다.¹⁰⁾ 서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위는 ‘사건’이다. 사건은 움직이는 인물의 행위와 이동을 통해서 발생하므로, 서사 전개의 중요한 요소로서 ‘움직이는 인물’ 즉 행위주체의 발화·행위·장소·이동에 주목해야 한다. 수행주체는 ‘경계가 되는 자’라고도 하였다. 이 부분은 ‘분할’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텍스트들을 공간적으로 분할하기 위한 큰 틀로서 우선 로트만이 제시한 문화모델링의 기본적인 모형을 보자. 이 모형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 데, 하나는 문화를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것과 이 둘은 대립쌍이라는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로트만의 공간적 문화모델은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됨을 전제로 하여, 원형은 ‘내부 영역’이고, 바깥쪽 사각형은 ‘외부 영역’이라고 한다. 로트만은 근대 러시아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처럼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의 이원체제를 제시하였다. 러시아 외부의 서구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1, 외부 영역2로 구성된 삼원체제를 설계하기도 하였다. 로트만에 따르면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의 이차원으로 구

10) 김수환, 「‘경계’개념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접근-구별의 원리에서 교환의 메커니즘으로」, 『기호학연구』23, 한국기호학회, 2008, 494쪽 참고.

성된 문화모델의 내부에는 단 하나의 경계가 존재하므로 삼원체제는 이 명제를 위반하는 모델이 되긴 하지만, 인간의식의 영역에서 문화의 공간을 상이하게 분절하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¹¹⁾는 여지를 남겼다.



[그림 1] 로트만의 문화모델

이 글에서 신화텍스트의 공간분할은 삼원체제로 설정하였다.¹²⁾ 로트만의 삼원체제는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¹ 그리고 가장 바깥의 외부영역²로 구성되나, 이 글에서는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그리고 경계로 구성된 모델로서의 삼원체제를 말한다. 이때 경계를 사이공간으로 보고자 한다.

사이공간은 경계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인물이 머무르는 장소들, 인물의 특수성과 발화양상, 행위 모두를 포괄한 개념으로서의 공간으로

11) [그림 1]과 관련한 설명은 다음의 로트만 이론서를 참고하였다. 유리로트만, 김수환 역, 『기호계-문화연구와 문화기호학』, 문학과 지성사, 2008.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11.

12) 텍스트에 대한 공간적 삼분할의 시도는 송효섭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송효섭은 설화 텍스트에서 인물들의 본질적 특성이 인물자신이 속한 공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며, 등장인물(꼭 주인공은 아님)의 움직임과 가치의 이동을 결합하여 네 개의 설화유형을 제시한다. 각각의 유형은, 등장인물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경우, 안에서 밖으로 갔다가 다시 안으로 돌아오는 경우, 밖에서 안으로 왔다가 다시 밖으로 돌아가는 경우이다. 송효섭, 「공간적 삶과 문화적 지향-설화 유형과 문화 원리」,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2002, 245~262쪽 참고.

확장된 것이다. 인물을 곧 인물이 머무는 장소와 결합한다면, 텍스트에서 인물들이 거치는 여러 개의 장소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서사 텍스트 안에서 인물의 트릭스터적인 면모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경계의 속성 역시 이 세계와 저 세계 모두에 속하며, 두 곳을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경계이월성’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¹³⁾ 무속신화 텍스트의 세계 속에서 경계와 사이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이공간을 기준으로 한 대립쌍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로한 로트만은 이러한 문화모델을 위한 공간성의 요건으로 분할·경계·지향성·차원을 제시하였다. 문화모델은 이항대립을 전제로 하여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을 분할하고, 이 대립의 기준이 경계가 된다. 그러므로 경계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분할과 경계를 통해 생겨난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간의 대립은 다음과 같은 항들로 구성된다.

내부 영역	외부영역
우리 민족	타 민족
성	속
문화	야만
지식인	민중
질서	혼돈

이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은 간단히 말해 ‘조직화된(구조를 지니는 것)’과 ‘조직화되지 않은(구조를 지니지 않은 것)’의 관계이다. 내부 영역은 문명화된 안전하며 조화로운 공간인 반면, 외부 영역은 적대적이고 위험스런 혼돈의 공간이다. 위에 제시한 대립항외에도 다양한 대립이 실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물의 확장으로서 공간을 상정하므로 인물의 이동이나

13) 유리 로트만, 앞의 책, 494쪽.

행위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으로의 방향에 주목하기에 ‘지향성’ 개념도 함께 다룬다. 로트만에 따르면, 내부 영역에서 외부 영역으로 혹은 외부 영역에서 내부 영역으로 포섭을 위해 움직이는 가치가 존재한다. 수행주체의 시점이 내부 영역과 결합될 때 정방향성이라고 하고, 외부 영역과 결합될 때 역방향성의 지향성이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 언급된 분할, 경계, 지향성이 서사 표층의 구성원리라 한다면, 이를 통해 심층에 자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치체계는 ‘차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뒤에서 고찰할 것이다. ‘차원’은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이 서로 ‘동일한’ 차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문화가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Ⅲ. 무속신화의 공간적 분할과 사이 공간의 역할

1. 삼공본풀이

<삼공본풀이>는 가문장 아기가 태어나기 전, 가문장의 부모인 강이영성과 홍은소천이 서로 만나 아이를 갖게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수행주체인 가문장 아기와 부모 간에 맺어지는 불가분적 관계를 나타낸다. 가문장 아기가 태어나 자라게 되는 곳은 부모와 함께 사는 집으로, 수행주체의 의지와 상관없는 공간이다. 부모님의 집은 수행주체의 의지가 앞으로도 실현될 수 없는, 이미 질서가 조직화된 곳이다.

하루는 비는 축축하게 오는데, 강이영성과 홍은소천 부부가 앉아서 너무 심심하니 딸아기들과 문답이나 해 보고자 하여,

“큰딸아기 여기 와라.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입고 잘 사느냐?”

“하늘님도 덕입니다. 지하님도 덕입니다. 아버님도 덕입니다. 어머님도 덕입니다.”

“큰딸아기 기특하다. 어서 네 방으로 가라.”

“둘째딸아기 이리와라. 낫장아기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위발신하느냐?”
“하늘님도 덕입니다. 지하님도 덕입니다. 아버님도 덕입니다. 어머님도 덕입니다.”

“둘째딸아기 기특하다. 어서 네 방으로 가라.”

“막내딸아기 이리 와라. 가문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위발신하느냐?”

가문장아기가 말을 하되,

“하늘님도 덕입니다. 지하님도 덕입니다. 아버님도 덕입니다. 어머님도 덕입니다마는 내 배꼽 밑에 있는 선의 덕으로 먹고 입고 행위발신합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여자식이 어디 있느냐. 어서 빨리 나가거라.”

어머니 눈에 거슬리고 아버지 눈에 밟게 보여 입던 의복을 거두어 검은 암소에 실어 놓고 먹을 식량을 실어 집을 나간다.

“어머님아, 잘 살고 계십시오. 아버님아, 잘 살고 계십시오.”¹⁴⁾

제시된 부분을 보면, 딸들에게 ‘누구 덕’이라고 묻는 부모의 질문에 대해 은장·낫장 아기의 대답과 가문장 아기의 대답이 다르다. ‘부모님의 덕’을 언급하는 은장·낫장 아기에 대한 부모의 만족스러운 반응이 있다. 이 반응은 부모님의 덕보다는 ‘내 배꼽 밑에 있는 선의 덕’임을 언급하는 셋째 딸 가문장 아기의 대답에 이르러 강한 노여움을 내비치게 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상에 있다.

여기서 개별적 주체로서의 자각과 그 표현은 집단의 안위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렸다는 가부장의 신념과 부딪치고 있다. 강이영성과 홍운소천 그리고 세 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자 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담론은 가문장 아기를 내쫓음으로써 강력한 배제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부모의 집은 내부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간적 모델에서 두 개의 영역이 있고, 이 두 영역은 서로 대립관계라고 할 때, 기존 영역에서의

14) 현용준·현승환 역주, “삼공본풀이”,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95~97쪽.

배제는 다른 영역의 소속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문장 아기는 내부 영역의 입장에 있어서 외부 영역에 소속된 자이다.

내부 영역의 질서가 확고할수록 외부 영역과의 경계는 분명하다. 위 제시된 부분에서 외부 영역은 아직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가문장 아기가 지닌 신념이 받아들여질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타고난 복과 운명,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에 대한 가문장 아기의 신념은 내부 영역의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며 추방하여 내부 영역 밖으로 보내야 마땅한 것이 된다.

이 같은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의 대립 사이에서 경계가 된 가문장 아기는 행위, 장소와 결합하며 스스로의 영역을 만들어 간다. 그녀가 집 밖을 나와 잠깐 서 있게 되는 ‘먼 올레’와 하룻밤 머물게 되는 ‘초막’이라는 장소는 가문장 아기가 기존의 내부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먼 올레에 나오니, 어머니는 부모의 정 때문에 딸자식 보내려 하니 섭섭하여,

“큰딸아기야, 나가 보아라. 설운 딸아기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먹고 가라고 하라.”

큰형인 은장아기는 노뎃돌 위로 올라서면서,

“설운 아우야, 빨리 가 버려라.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나온다.”

가문장 아기가 말을 하되,

“설운 큰형님 노뎃돌 아래로 내려서면 청지네 몸으로나 환생하십시오.”

큰형님이 노뎃돌 아래로 내려서니 청지네 몸으로 환생해간다.

큰딸아기 나간 것이 안 와 가니, 둘째딸아기 불러 놓고,¹⁵⁾

“저 올레에 나가 보아라. 설운 아기 떠나는데 식은 밥에 물이라도 말아먹고 가라고 하라,”

둘째 형인 뉿장아기가 올레에 나와 거름 위로 올라서면서,

15) 위의 책, 97~99쪽.

“아이고 설운 아우야, 빨리 가버려라. 아버지 어머니가 널 때리러 나온다.”
 가문장아기가 말을 하되,
 “설운 둘째 형이랑 거름 아래로 내려서면 용달버섯 몸으로나 환생하십시오”
 둘째 형이 거름 아래에 내려서니 용달버섯 몸으로 환생해 간다.

제시된 부분은 가문장 아기가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신적인 능력을 발현한 부분이다. 비록 자기 덕에 산다고 당차게 말하긴 했지만,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자신이 뜻한 바가 아니었기에 빨리 가버리라는 언니들의 말에 저주 섞인 말로 대꾸한다. 그녀는 집 밖을 나오자마자 한 마디의 저주로 언니들을 청 지네와 용달버섯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이처럼 내부 영역에서 밖으로의 이동은 그녀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문장 아기는 저주 섞인 발화행위, 먼 올레라는 장소와 결합한 채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생성한다. 부모의 집이라는 내부 영역에서 벗어난 먼 올레에서 언니들을 각각 청 지네와 용달버섯으로 만들어버린 일은 그녀가 내부 영역에 대한 대립적 입장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텍스트 상에서 딸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부모들이 달려 나오다가 넘어지며 봉사가 되는 장면이 있다. 이 상황은 미래에 가문장 아기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여기 자신이 벌인 일을 해결하는 것이며,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임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의 이동과 발화 행위가 결합된 ‘먼 올레’는 신의 세계로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공간적인 형상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먼 올레 뿐 아니라 ‘이 재 넘고 저 재 넘고 신산만산 깊은 산으로 올라가다 마주치는 허름한 초막’에서 행해지는 가문장 아기의 선택과 금이 있는 곳의 제시는 가문장 아기의 존재가 이미 떠나온 내부 영역과 대립되는 다른 문화 즉 외부 영역에 소속됨을 드러낸다.

밥상을 다 설거지해 버린 끝에는 길에 구르는 돌도 연분이 있는데, 꽃을
본 나비라. 서로가 언약이 되어 작은 마통이를 곱게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
혀 내 놓으니 절세미남이 분명하구나. 백년동거 약속하고 한 방에서 잠을
잔다.

다음날 아침 가문장아가기,

“산중 산앞 마 파던 데를 구경갑시다.”¹⁶⁾

제시된 부분을 보면 가문장 아기는 허름한 초막집에서 머무는 중에 마
통이 삼형제를 눈여겨보고, 그들 중에 가장 인성이 좋아 마음에 든 막내
를 선택하여 부부의 연을 맺는다. ‘마통이를 목욕하게 하고, 새 옷을 입
히며’ 가문장 아기는 혼인에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을 보인다. 또 혼인한
다음날 ‘마 파던 데를 구경 가자’고 하며 그 곳에서 마통이에게 금덩이
와 은덩이가 있는 곳을 알려줘 함께 부자가 된다.

내부 영역 안에서 내부 영역의 가치와 질서를 위협할지 모를 존재였던
가문장 아기는 내부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확신에 찬 행동들을 통해
신적인 능력을 발현하고 부모의 허락이나 개입 없이 혼인을 결정하고 재
산을 축적하는 등 성숙하고 완전한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이후 가문장 아기가 ‘처마 높은 기와집’에서 살면서 거지 찬지를 열고
부모님을 찾아 만나는 것은 ‘부모의 덕’으로 상징되는 내부 영역의 질서
가 사실상 ‘자신의 덕’이라는 외부 영역의 질서 즉 운명론적인 입장의
하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영역과 결합된 자로서 외부영역
의 가치를 내부 영역으로 침투시키는 가치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경계로서, 또 경계를 횡단하는 인물로서 가문장 아기는 궁극적으로 외
부 영역과 결합한 수행주체로, 외부 영역의 가치로 내부 영역을 포섭한
다. 로트만의 문화모델에 따르면, 경계는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 중 단
한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고 두 영역 모두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공간

16) 위의 책, 105쪽.

은 중립적인 곳이 아니라 항상 인간의 어떤 과업이나 생활 경험에 따라서 의미를 가지는 곳이기 때문이다.¹⁷⁾ 그러므로 경계로서의 인물과 영역이 결합함으로써 지향성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두 영역의 대립관계를 위계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부 영역은 부모의 집, 외부영역은 신의 세계이며, 가문장 아기는 이 두 영역을 넘나드는 신적 존재라 할 수 있다. 가문장 아기는 자신이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집 밖의 공간들, 먼 올레와 초막집과 결합하여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간의 ‘사이공간’을 생성한다. 여기서 먼 올레와 초막집을 외부 영역이 아닌 ‘사이공간’으로 보는 이유는, 먼 올레나 초막 안에서 신적 자질을 발현하고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행위 하긴 하지만 이들 장소가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동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임시적인 곳으로서 가문장 아기에게는 안전/위협이라는 대립쌍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가치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먼 올레’는 가문장 아기가 서성대며 언니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곳이고, ‘초막’은 언니들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마통이 형제들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곳으로서 가문장 아기에게 완벽히 안전하지도, 그렇다고 위험하지만도 않은 양가성의 공간이 된다.

정리하자면, <가문장 아기> 텍스트에서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의 대립성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가문장 아기의 단호한 이동과 망설임 없는 선택, 저주의 발화로 알 수 있는 것으로 경계로서의 가문장 아기는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을 분명히 가르는 영역이 된다. 또한 가문장 아기는 신의 자질을 보이고 있고 이를 증명하고 있으므로 ‘외부 영역’의 가치와 결합되어 있는 존재이다.

2.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역시 ‘영웅적 서사’의 흐름대로 출생 이전의 이야기부터

17) 에드워드 랠프, 앞의 책, 55쪽.

시작된다. 자청비는 부모의 오랜 기원 끝에 탄생한 존재이다.¹⁸⁾ 그녀는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난 문도령을 따라 글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그런데 한번 집을 나가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은 가문장 아기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떠남의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다시 떠났다가 돌아오고를 반복한다. 자청비가 행한 ‘떠남과 돌아옴’의 반복적인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세경본풀이>의 주요 사건들을 서사절¹⁹⁾로 정리해 보겠다.

- ① 자청비는 집진국 대감과 자지국 부인님의 딸로 태어났다.
- ② 자청비는 열다섯살 때 주천강 연못에서 빨래를 하다가 옥황상제 아들 문도령을 만나 물 한바가지를 떠준다.
- ③ 자청비는 글공부를 하려간다는 문도령에게 기다리라고 하고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남장을 하고 ‘자청도령’이라 속인 채 함께 떠나 서당에 가서 글공부를 한다.
- ④ 삼년이 지나 문도령이 옥황에게 서수왕에게 장가들라는 명령을 받고 글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자청비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 ⑤ 자청비와 문도령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채 상동나무 머리빛을 꺾어 증표로 나누어 갖고, 문도령은 노각성자부줄을 타고 하늘옥황으로 올라간다.

18) ‘기자치성’은 제주도 무속의 중요한 신화소로 <세경본풀이>를 비롯하여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칠성본풀이>등에 등장한다. 그 내용은, 부유한 집안의 부부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기자치성을 드리고 딸을 얻는 다는 것이다. 기자치성을 드릴 때, 절이나 대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데, 부모가 시주한 물건이 ‘백 근이 안 되어서’ 남아가 아닌 여아로 태어났다는 서술이 있다. 이수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기자치성에 의한 ‘신성한 출생’은 신화 내 배치된 신성한 남성신들과의 결합을 위해 여성신들의 신분을 맞추기 위한 신화적 장치이고, ‘백 근이 안 된 부족함’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여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자치성’신화소에 대한 설명은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5, 360~365쪽 참고.

19) 이 텍스트에서 수행주체는 자청비이므로 거의 모든 서사절의 주어는 ‘자청비’이다. 또한 공간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텍스트 내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인간 세계의 법도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직접적인 설명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현웅준·현승환 역주, 앞의 책, “세경본풀이”, 196~259쪽 정리.

- ⑥ 자청비는 노비 정수남이에게 말 아홉 마리, 소 아홉 마리와 도끼, 잠방이를 주며 구미굴산에 가서 삭정이를 주워 싣고 소머리에는 철쭉, 진달래를 꽂아오라고 시킨다.
- ⑦ 정수남이는 시킨 일을 하지 않은 채 낮잠을 자고 말과 소를 다 잡아먹고 돌아와 자청비에게 거짓말로 문도령을 보았다고 말한다.
- ⑧ 자청비는 정수남이의 말을 믿고 구미굴산으로 문도령을 만나러 가지만, 정수남이의 거짓말임을 깨닫고 자신을 희롱하는 정수남이에게 머릿니를 잡아주겠다고 하며 청미래덩굴로 귀를 찢러 죽인다.
- ⑨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죽인 일로 부모님이 화를 내자, 다시 남장을 하고 아랫마을 황세곤간이 있는 서천꽃밭으로 가서 매일 밤 그 집에 와서 우는 봉새를 잡아주겠다고 한다.
- ⑩ 자청비는 봉새로 환생한 정수남이를 불러 화살로 찢러 죽이고 그 집 사위로 들어간다.
- ⑪ 자청비는 부인에게 부탁하여 그 집 서천꽃밭을 구경하며 살이 오르는 꽃, 피가 오르는 꽃, 환생시키는 꽃을 꺾어 주머니에 넣어둔 채 과거시험을 본다고 하고 떠난다.
- ⑫ 자청비는 구미굴산 정수남이 죽은 데를 찾아가 꽃으로 정수남이를 살려내 집으로 데려간다.
- ⑬ 자청비는 죽은 사람을 살린 일로 부모님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가라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발 가는대로 가다 주모땅 주모할머니 집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으며 공단을 짜는 일을 한다.
- ⑭ 자청비는 자신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아온 문도령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곁창 구멍으로 손가락을 내밀게 하여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찢러 피를 나게 하여 문도령이 돌아가게 만든다.
- ⑮ 자청비는 문도령을 돌아가게 한 일로 할머니에게서도 쫓겨나 떠돌다가 하늘옥황궁녀를 만나, 그녀가 문도령의 명으로 자청비와 목욕하던 물을 떠가야 하는데 어딘지 알 수 없어 우는 것을 알게 된다.
- ⑯ 자청비는 궁녀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궁녀와 함께 옥황에 가서 문도령을 만나 문도령 방에 숨어 지낸다.
- ⑰ 자청비는 옥황상제가 머느리 될 사람은 ‘신자 구덩이를 파서 솥 신섬

을 묻어 불을 피워놓고, 불위에 칼날이 선 다리를 놓아서 타 나가고 타 들어와야 자격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여 며느리자격을 얻는다.

⑱ 자청비는 문도령과 부부로 지내다가 궁 안에서 문도령을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서천꽃밭 셋째딸아기에게 자기 대신 가서 지내라고 하고 보냈다가 자신이 푸대쌈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문도령을 부른다.

⑲ 자청비는 푸대쌈하러 온 군졸들에게 남편이 깔고 앉는 방식이라며 무쇠방석을 보여주어 달아나게 하고, 독약 먹고 죽은 문도령을 위해 서천꽃밭에서 꽃을 따와 살려낸다.

전체 서사절을 살펴보면, 자청비가 ‘부모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은 ③, ⑨, 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③의 집 떠남은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하러 나온 것으로 부모의 허락과 남장이라는 타협적인 행위가 동반되어 있다. ⑨와 ⑬의 집 떠남은 ‘정수남이를 죽이고 살린 일’때문에 발생한다. ⑨는 부모의 야단에 하는 수 없이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 방도를 찾고자 집을 나오는 부분이고, ⑬은 정수남이를 살린 일로 역시 부모의 분노를 사서 집에서 쫓겨나게 된 부분이다.

‘부모의 집에서 떠남’이라는 공통의 사건이 있는 ③, ⑨, ⑬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텍스트적 세계는 기존의 영역에서 나온 수행주체의 행위가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신의 의지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의지가 내부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집을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③의 경우, 자청비가 처음 문도령과 글공부를 하러 떠난 행위에는 부모의 허락과 남장이라는 타협이 존재한다. ⑨의 경우, 자신을 위협하는 정수남이를 다시 살리려는 것은 해결을 강구하는 본인의 선택이 있긴 해도 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 노비(정수남이)를 죽여서 화가 난 부모님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정수남이를 살리고자 나온 것이다. 자청비의 부모는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죽인 사실을 알고는

“이년아, 저년아, 잘 나가고 잘 났다. 계집이 사람을 죽이다니, 네년은 남의 집에 시집가면 그만인데, 그 종은 살려두면 우리 두 늙은이 먹고 살 노동은 해준다.”고 한다. 자청비가 화가 난 부모에게, 노비(정수남이)가 하던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자 자청비의 부모는 그녀에게 “넓은 밭에 좁씨 닳말 닳되 칠세 오리를 뿌려 놓고 다 주워오라”고 명령 한다. 자청비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오게 된다. ③의 경우, 정수남이를 살려서 데려 오지만, 집안을 망칠 년이라며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이동은 자청비의 부모이 있는 내부 영역에 자청비가 끝내 소속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청비는 내부 영역의 질서 하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며 그들의 명을 받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그녀의 신이한 능력에 대한 부모의 배타적 태도는 그녀가 근본적으로 내부 영역에 소속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킨다.

자청비는 내부 영역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쫓겨나며 순환적 이동을 하지만, 동시에 외부 영역을 향해 자신의 외연을 넓히기도 한다. 자청비가 집에서 나와 머무르게 되는 장소는 신이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곳이다. 우선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은 재생의 꽃이 피는 서천꽃밭을 가진 황세곤간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릴 서천꽃밭에 들어가기 위해 봉새로 환생한 정수남이를 한 번 더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때 환생한 정수남이를 불러들이는 행위와 서천꽃밭에서 사람을 살릴 꽃을 얻어 구미굴산에 있는 정수남이를 살리는 행위를 통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이한 행위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공단 짜는 할머니 집에 가게 되어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하게 되는데, 자청비가 짠 비단이 옥황 문왕성 문 도령이 입을 옷이라는 점에서 공단 짜는 할머니 집은 ‘기다림만 가능했던’ 이전의 내부 영역과 다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내부 영역과는 분명 다른 공간에서 자청비는 내부 영역에 매인 채 딸로서 부모에게 복종하고 여성으

로서 문 도령을 기다리기만 한 모습에서 벗어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늘과 관련된 일을 하는 등 신의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자청비는 이처럼 내부 영역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신이한 능력을 결합하여 사이공간을 형성하는 한편으로, 그 공간에서조차 배제된다. 이른바 경계화되며 자신이 만들어가는 공간에서 외부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자청비는 황세곤간의 집에서 ‘남성’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할머니의 집에서는 공단을 짜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청비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므로 발각의 위기에 놓이게 되고, 문 도령을 화나게 한 탓에 일꾼으로서의 역할도 박탈당한다. 이처럼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위협과 자격의 박탈, 그로 인한 배제의 원리가 구축되고 있는데, 사이공간에서조차 신적인 능력을 지닌 수행주체의 행위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여전히 부모님이나 공단 짜는 할머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미굴산, 서천꽃밭, 공단 짜는 할머니의 집은 사이공간이지만 내부 영역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앞서 <삼공본풀이>의 가문장 아기는 부모의 집에서 나간 이후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중에 부모를 찾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집에서 거지잔치를 열어 부모가 자신의 영역에 오게끔 하는 것이지 부모의 집으로 찾아 가는 것은 아니다. 또 자신의 집이 큰 기와집이라는 점과 잔치를 벌인다는 행위를 통해서도 부모의 질서로 표상되는 내부 영역의 범위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반복적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며 내부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속의 의지를 보인다. 또 내부 영역에서 나가 사이공간을 형성하는 와중에도 계속 경계화 되고 있다. 즉 자청비는 반복적인 쫓겨남을 통해 내부 영역 뿐 아니라 사이공간에서조차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경계화되고 배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문장 아기는 내부 영역에서 배제된 이후에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외부 영역과의 결합을 증명하고 외부 영역의 가치로 내부 영역을 포섭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해 자청비는 이 사이공간에서도 의심받거나 배제되는 방식으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결국 그러한 배제의 방식으로나마 외부 영역에 점차 도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궁극적으로 외부 영역의 가치에 결합된 존재임이 확인된다. 다만 그 과정 안에서는 불완전성이 강하게 부각되며 인간적인 시련과 고통의 경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리하자면, 자청비는 내부 영역에서 외부 영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계화를 거듭하며 기존의 영역들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이동하며, 경계화를 통해 내부 영역에서 요구되는 자질들을 버려가는 가운데 외부 영역에 소속된 존재이자 외부 영역의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3. 삼승할망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에서도 수행주체들의 탄생 이전 내용이 먼저 등장한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앞서 <삼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의 가문장 아기와 자청비와는 다르게 두 명의 수행 주체가 존재한다.

동해용왕 할머니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인간 할머니가 먼저 탄생했습니까? 동해용왕 할머니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a) 동해용왕 할머니가 태어나기는 구월초아흐렛날 아버님 동해용궁 어머니 서해용궁으로 태어나 열다섯 십오 세 되니, 한두 살에 아버님 삼각수 뽑은 죄목, 아버님 담뱃대 꺾은 죄목, 어머니 젖가슴 잡아 뜯은 죄목 때문에 죽이기로 했습니다...(중략)... b) 지부사천왕이 말을 하되, “예, 인간 세상에 있을 듯하옵니다. 아버님은 석가 여래 어머니는 석가모니로서 인간 세상에 맹진국 따님 아기가 태어났는데, 탄생일을 보니 병인년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 정월 초사흘날 태어나, 부모에 효심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깊은 물에 다리 놓아 건너다니게 공덕을 쌓고,

한쪽 손에 번성 꽃 한쪽 손에 환생 꽃을 들었으니, 이 아기씨를 생불왕으로
들여 세우는 것이 어떻습니까?²⁰⁾

제시된 부분은 동해용궁 따님아기(동해용왕 할머니)와 멩진국 따님아기(인간 할머니)의 출생배경과 성격에 관한 내용이다. a)이하 밑줄 친 부분은 동해용궁 따님아기에 대한 내용이고, b)이하 밑줄 친 부분은 멩진국 따님 아기에 대한 내용이다. 동해용궁 따님아기와 멩진국 따님아기는 각각 부정적인 인물과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a)의 내용은 멩진국 따님아기보다 먼저 태어난 동해용궁 따님애기는 여러 가지 죄목으로 열다섯 세에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장면이다. 뒤이어 죽음 대신 무쇠석갑에 갇혀 바닷물에 둥둥 떠내려 오는 내용이 이어진다. b)의 내용은 동해용궁 따님애기가 산모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옥황상제가 동해용궁 따님아기 대신 누구를 생불신으로 할까 주변에 물으니, 지부사천왕이 멩진국 따님아기를 거론하며 추천하는 장면이다.

“어머님아, 난 인간에 가서 뭇을 하며 삽니까?”

“인간에 아기의 잉태와 출산, 양육을 맡은 삼승할망인 생불왕이 없으니 생불왕으로 들어서서 얻어먹도록 하라.”

“생불은 어떻게 주며 환생은 어떻게 줍니까?”

“아버지 몸에 흰 피 석달 열흘, 어머니 몸에 검은 피 석달 열흘, 아홉 달 열 달 준삭 채워 출산을 시켜라.”

“어디로 출산을 시킵니까?”

대답을 듣기 전에 아버님이 우레 같은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가니 무쇠석갑에 가둬놓고 ‘임박사 임보루주가 문을 열어라.’글 석자를 써 놓고 동해용왕에 띄워 버린다. 물 아래에도 3년, 물 위에도 3년 떠 다니다 처녀를 가에 올렸더니 임박사가 보인다. ‘임박사 임보루주가 문을 열어라.’하였으니

20) 현웅준·현승환 역주, 앞의 책, “삼승할망본풀이”, 25쪽.

마흔 여덟 자물쇠를 저절로 열어놓고, 무쇠석갑 안을 보니 앞이마엔 햇님인 듯, 뒷이마엔 달님인 듯 양쪽 어깨엔 셋별이 오송송하게 박힌듯한 아기씨가 앉아있습니다.²¹⁾

제시된 부분은 바로 앞에서 제시된 부분의 a)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부모로부터 막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다.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인간세계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어머니로부터 생불왕이 되라는 대답을 듣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아버지 몸에 흰 피 석 달 열흘, 어머니 몸에 검은 피 석 달 열흘, 아홉 달 열 달 준사를 채워” 생명을 만드는 방법은 듣지만, 출산시키는 방법은 듣지 못한 채로 무쇠석갑 속에 갇혀 버려진다.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비록 잘못을 저질러 부모로부터 분리되긴 하지만, ‘동해 용왕의 딸’이라는 점은 이미 태생적으로 신성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등장하며 신의 영역에 속한 자임을 알 수 있다.

앞선 두 텍스트에서는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곳을 내부 영역이라고 하고 수행주체들의 이동을 이 내부영역에서의 이탈로 분석한 바 있다. 이 텍스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떠나려오기 전 바다 속 동해용왕이 사는 곳을 내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집에서 쫓겨난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임 박사를 만나게 되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를 죽게 만든다. 어머니로부터 출산시키는 방법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생명을 만드는 지식이 있다는 점에서, 신적인 능력은 있으나 그 것은 불완전한 능력임을 알 수 있다. 인간 세계에서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임 박사를 만나 자신의 능력을 발현함과 동시에 한계를 내비친다. 이때 동해용궁에서 벗어나 인간을 만나서 반쪽자리 능력을 펼치는 인간세계가 사이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수행주체들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자이자 ‘능력’을 확인하는 곳으로 양가적인 성격의

21) 위의 책.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적 분할의 가능성은 멩진국 따님아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가운데 좀 더 명확해진다.

멩진국 따님아기는 노각성자부줄을 타고 옥황상제에게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말을 하되, 아기씨의 속 마음이나 알아보려고,

“총각머리를 등에 진 처녀아기씨가 어찌 대청 한가운데로 들어오느냐?”

멩진국 따님아기가 말을 하되,

“소녀도 아뢰 말씀 있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은 여태 지금까지 있는데 어떤 일로 총각머리 등에 진 처녀를 불렀습니까?”

“야, 똑똑하고 역력하다. 그만하면 인간세상에 생불왕으로 들어설 만하구나.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생불왕이 없으니 생불왕으로 들어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 끝에 멩진국 따님아기가 말을 하되,

“옥황상제님아, 아무 분수를 모르는 어리고 미혹한 소녀가 어찌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줍니까?”

“아버지 몸에 흰 피 석 달 열흘, 어머니 몸에 검은 피 석 달 열흘, 살을 만들며 석 달, 뼈를 만들며 석 달, 아홉 달 열 달 준삭 채워 아기 어머니 혈거운 뼈를 뺏뺏하게 하고, 너무 뺏뺏한 뼈 혈겁게 하여 열두 궁의 문으로 해산을 시켜라.”²²⁾

앞서 제시한 멩진국 따님아기의 출생에 관련한 부분에서 “한쪽 손엔 번성 꽃 한쪽 손엔 환생 꽃을” 들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그녀 역시 동해용궁 따님아기의 경우처럼 신성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의 영역에 속한 자로 보인다. 위에 제시된 부분은 멩진국 따님아기가 옥황상제에게 가서 임신과 출산의 기술을 모두 배우는 장면이다. 멩진국 따님아기가 노각성자부줄을 타고서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과 옥황상제 앞에서 생불왕으로서의 지식이 없음을 밝힌다는 점에서 능력의 한계를 지닌 주체의

22) 위의 책, 29~31쪽.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의 세계 안에서 내부 영역은 동해용궁 따님아기와 멩진국 따님아기가 신성성을 지니고 태어난 곳이며 이들은 내부 영역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동을 하며 인간적인 한계와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적인 한계와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공간은 인간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선 두 텍스트에서 수행주체가 내부 영역에서 벗어나며 신성성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와는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수행주체들의 불완전성을 통해 형성되는 사이공간은 수행주체들의 다툼과 협상, 그리고 겨루기의 행위와 결합되어 있는 공간이다.

“어떤 아기씨가 앉아서 슬프게 읊니까?”

물었더니,

“나는 동해용궁 따님아기로 인간 세상에 생불왕으로 귀양을 와 슬프게 읊니다.”

멩진국 따님아기 말을 하되,

“나는 옥황상제의 분부 받은 인간 세상의 생불왕이 됩니다.”

그 말 끝에, 동해용궁 따님아기 화를 벌컥 내며 멩진국 따님아기의 머리를 좌우로 핑핑 손에 감아서 구타하니, 멩진국이 말을 하되,

“우리 여기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옥황상제 분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자.”²³⁾

제시된 부분은 멩진국 따님아기가 옥황상제로부터 생불왕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고 내려오다가 울고 있는 동해용왕 할머니와 만나는 장면이다. 멩진국 따님아기가 옥황상제로부터 생불왕 자격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용왕 할머니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둘은 옥신각신하다가 다시 옥황상제에게 가게 된다. 이를 통해서 이 텍스트 안에서 옥황상

23) 위의 책, 31쪽.

제로 표상되는 신적 질서와 가치체계는 확고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행주체들 역시 신적 자질을 가지고는 있
나 자신의 행위와 역할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의지, 믿음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옥황상제는 자신을 찾아온 두 수행주체들에게 꽃씨 두 방울을 내어주
며 서천서역국 모래밭에 꽃씨를 심어 번성하는 것을 봐서 생불왕 자격을
주겠다고 한다. ‘꽃 피우기 내기’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의 크기를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 알게 되는 사건으로서 신들의 정체성-이승 산신
이나 저승 산신이나를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

“동해용궁 따님아기 꽃은 보니 시드는 꽃이 되었으니 저승할망으로 들어
서고, 맹진국 따님아기 꽃은 번성꽃이 되었으니 인간 할망으로 들어서라.”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말을 하되,

“인간에 생불을 주고 환생을 주어 석달 열흘 백일이 되면, 경풍, 경세같은
열두 풍운의 병을 주어 얻어 먹겠다.”

인간 할망이 말을 하되,

“그리 말고 우리 좋은 마음먹기가 어떠냐?” 내 인간에 내려서서 생불을
주면 너의 뭇의 뭉뚱 9자로 인정을 걸어주마. 아기 업는 뭉뚱 수호신의 뭇
과 업저지 수호신 뭇도 인정 걸어주마. 아기 엄마의 땀은 머리와 땀이 뻗
삼, 땀이 뻗 치마 모두를 인정 걸어주마.²⁴⁾

제시된 부분은 꽃을 번성한 결과로 각각 이승의 산신과 저승의 산신이
된 맹진국 따님아기와 동해용궁 따님아기 사이의 갈등과 해결이 일어나
는 장면이다. 동해용궁 따님아기는 이승산신이 된 맹진국 따님아기에게
이승의 아기들에게 질병을 줄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에 대해 맹진국 따
님아기는 화해를 제안하며 저승 산신이 된 동해용궁 따님아기에게 예우
를 행할 것을 약속한다. 겨루기의 결과에 있어서도 완전히 승복하지 못

24) 위의 책, 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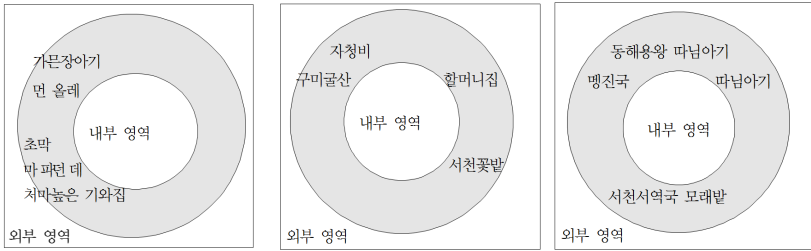
한 동해용궁 따님아기와 이에 대해 적절한 타협을 해야 하는 멩진국 따님아기의 모습은 텍스트 안에서 계속해서 신적 질서가 확고하지 않은 채로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리하자면, <삼승할망본풀이>의 두 주체들은 가문장 아기에 비해서 불완전성이 강하지만, 자청비에 비해서 두드러진 시련의 과정을 겪지는 않는다. 불완전성을 극복하며 신으로 좌정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차이를 통해 역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승 산신과 저승 산신을 가르는 ‘겨루기’의 내용이 ‘꽃을 많이 피운다’는 변성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꽃 피우기 내기’는 임신, 출산하는 법에 대한 지식이 능력화되어 그 능력의 정도를 측정해 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텍스트에서 사이공간으로서 인간 세계는 신들이 자신의 불완전성을 노출함과 동시에 겨루기를 통해 능력을 확인하는 양가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수행 주체들은 사이공간을 생성하며 외부영역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부영역과 외부영역 사이의 관계는 상호 대응관계일 뿐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기도 한데, 두 공간이 같은 차원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²⁵⁾ 그러므로 <삼승할망본풀이>의 내부영역과 외부영역은 신들이 만들어 가는 창조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공간이 같은 차원이자 인과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 세계로서 외부영역을 상징할 수 있다.

[그림 2]는 지금까지 신화적 텍스트를 공간적 언어로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다. 색이 입혀진 부분은 사이공간의 영역이다. 결합한 장소를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삼공본풀이>의 신화적 세계에서 가문장 아기는 먼 올레, 초막, 마 파던 데 그리고 부자가 되어 얻은 처마 높은 기와집의 장소들과 결합하여 사이공간을 형성한다. <세경본풀이>의 세계에서 자청비는 서천꽃밭, 구미굴산, 할머니 집이라는 장소들과 결합하여 사이공간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삼승할망본풀이>의 세계에

25) 유리로트만, 앞의 책, 47~48쪽.

서 동해용궁 따님아기와 멧진국 따님아기는 서천서역국 모래밭과 결합하여 사이공간을 형성한다. 이때 각각의 장소는 수행주체의 신이한 능력과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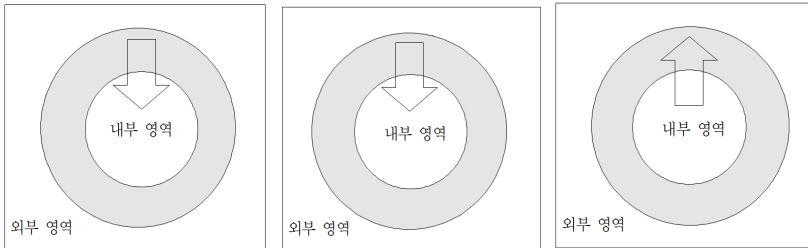


<삼공본풀이의 공간>

<세경본풀이의 공간>

<삼승할망본풀이의 공간>

[그림 2] 무속신화텍스트의 공간 분할



<삼공본풀이의 가치이동>

<세경본풀이의 가치이동>

<삼승할망본풀이의 가치이동>

[그림 3] 무속신화텍스트의 가치 이동

[그림 3]은 수행주체가 어떤 영역과 결합하여 가치를 이동시키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삼공본풀이>의 공간에서 수행주체는 먼 올레를 거쳐 초막에 다다르고, 마통이를 만나 새로운 영역을 생성하는 ‘내부 영역→외부 영역’의 이동성과 결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문장아기가 전 상신이 되어서 주어진 운명이 인간의 의지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므로, 가치의 이동은 ‘외부 영역→내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경

본풀이>의 공간에서 자청비는 구미굴산, 주모땅 공단 짜는 할머니 집, 서천꽃밭의 장소들과 결합하여 사이공간을 형성하고 그 가운데 경계화되며 외부 영역으로 이동한다. 수행주체의 이동은 ‘내부 영역→외부 영역’의 방향이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자청비는 천상의 존재들과 만나 그들에게 신직을 받게 되고 인간세계를 다스리는 농경신으로 좌정하므로, 그 역할은 신적 질서와 가치로 인간의 영역을 포섭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치의 이동은 역방향으로 ‘외부 영역→내부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삼승할망본풀이>의 공간에서 동해용궁 따님 아기와 맹진국 따님아기는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지만, 불완전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며 지식의 부족, 실패, 싸움, 겨루기의 행위와 서천서역국 모래밭의 장소와 결합하여 사이공간을 형성한다. 수행주체의 이동은 역시 ‘내부 영역→외부 영역’이지만, 가치의 이동은 앞의 두 텍스트와 다르게 ‘내부 영역→외부 영역’으로 정방향성을 보인다. 그 이유는, 사이공간에서의 행위와 그 결과가 외부 영역의 질서로 고착화되기 되기 때문이다.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사이 공간은 수행주체들이 만나고 싸우고 겨루고 타협하는 모습과 결합하며 형성된 곳으로, 그들은 그 곳에서 신적 자질보다 인간적 한계와 불완전함을 더 많이 드러낸다. 불완전성을 극복해가는 가운데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신적 질서가 확립되므로 내부 영역의 가치가 외부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가치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삼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에서도 수행주체와의 결합정도에 차이가 있다. 수행주체가 외부 영역과 강하게 결속된 <삼공본풀이>에 비해 <세경본풀이>는 수행주체는 내부 영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순환적 이동은 타인에 의한 평가와 판단에 의해 수행주체가 휘둘리기 때문이며, 수행주체는 집으로 표상되는 내부 영역을 나가서도 계속 경계화된다. 이는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영역의 가치와 외부 영역의 가치의 장악력이 비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자청비가 옥황상제의 며느리가 되고 세경신이 되며 신적 가치체계

와 질서를 지닌 외부 영역의 존재로 완전히 귀결되는 결말부를 통해 가치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가치의 이동은 아래의 그림을 통해 정리된다.

IV. 결론 : 무속신화의 공간적 모델을 통해 본 신화적 사유

앞서 로트만의 공간적 모델링을 위한 개념들로 수행주체·분할·지향성·차원을 소개한 바 있다. 서사텍스트를 분석할 때 이 개념들은 서사텍스트의 서로 다른 층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사적 전개와 인물의 행위는 서사텍스트의 표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간적 ‘분할’을 구상하고 ‘지향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차원’은 텍스트의 심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과 지향성을 통해 표층 분석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근간에 자리한 가치체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 도구이다. ‘차원’은 두 영역의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공간적 분할로 대립되는 두 영역은 두 가지 타입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문화와 비문화’의 관계거나 ‘문화와 반문화’의 관계이다. 외부 영역이라는 타문화를 비문화나 반문화로 보는 것은 자신의 문화를 완결된 형식과 균형 잡힌 구조로 세우려는 관념적 의지의 소산이다.²⁶⁾ 이때 외부 영역을 비문화로 보는 것은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을 동일한 차원으로 보는 입장이다. 동일한 차원에 놓였으므로 비문화는 지금은 조직화되지 않은 혼돈의 공간일지라도 다른 영역의 문화를 통해 언제든지 조직화될 수 있는 잠재적인 문화의 영역으로 파악된다. 두 공간을 동일하지 않은 차원에 놓였다고 보는 것은 외부 영역을 반문화로 이해할 때이다. 반문화는 문화에 대한 적대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며 이 경우 경계화 내부 영역에서 낯선 존재를 제외시키는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26)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11. 132~133쪽 참고.

그렇다면 무속신화텍스트를 공간적 모델링 하였을 때, 텍스트를 구성하는 두 영역은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 <삼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의 경우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은 문화와 반문화의 관계이다. 내부 영역은 수행주체들을 내쫓음으로서 ‘우리의 영역’에서 이방인을 제외시킨다. 결과적으로 텍스트적 세계는 내부 영역이 아닌 외부 영역의 초월적 질서를 강조한다. 외부 영역과 결합된 자로서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자)’은 곧 가치의 역방향성을 통해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세경본풀이>의 텍스트적 세계는 수행주체의 순환적 이동을 통해 경계가 계속 생겨나며 두 문화 간의 교류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이공간은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을 대립된 가치의 영역으로 가르는 경계의 역할을 지니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영역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 영역은 외부 영역에 의해 포섭, 통합된다.

<삼승할망본풀이>의 경우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과의 관계가 위의 경우와 다르게 드러나는데, 여기서의 내부 영역은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추론되고, 외부 영역은 신적 질서가 확립된 결과인 결과적 세계로 해석된다. 이 두 영역은 시간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두 주체의 본질은 ‘신’이지만, 텍스트적 세계는 신의 질서와 공간을 절대적인 가치와 질서의 공간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인 신들의 대립과 타협이 진행 중인 내부 영역과 결과물로서의 외부 영역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하기에 신으로서의 두 수행주체는 끝까지 불완전함을 노출하며 각각 이승의 산신과 저승의 산신으로 좌정한다. 초월적인 신의 영역에서 비롯된 두 주체는 앞의 두 텍스트의 경우에서처럼 사이공간을 형성하며 불완전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두 주체는 불완전성을 드러내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간에 경쟁과 타협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텍스트적 세계 안에서 사이공간은 양 영역의 대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내부 영역은 사이공간을 통해서 외부 영역으로 진화해 간다. 이 둘의 관계는 문화와 비문화의 관계이다.

이 글에서는 무속신화 텍스트의 내용을 공간적 언어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포착된 공간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전체 공간들의 의미망 안에서 탐구하고자 하였다. 레비스트로스는 기원이 되는 신화는 없으며 다양한 판본들이 모두 신화라고 하였다. 신화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판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무속신화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 논문의 명백한 한계이며 다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공간적 모델링의 작은 시도로서 이해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권복순,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인물의 기능과 그 의미-신직차지하기 경쟁 신화소를 중심으로」, 『어문학』 116, 어문학회, 2012, 185~209쪽.
- 권태효, 「제주도 일반신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2011, 7~30쪽.
- 김수환, 「『경계』 개념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접근-구별의 원리에서 교환의 메커니즘으로」, 『기호학연구』 23, 한국기호학회, 2008, 489~514쪽.
-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11.
-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181~208쪽.
-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2002.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초월공간과 중심공간」, 『탐라문화』 3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85~110쪽.
- 에드워드 램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오세정, 「한국신화의 타계(他界)연구-수평적 방위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51,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11, 317~335쪽.
- _____, 「한국 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311~334쪽.
- 유리로트만, 김수한 역, 『기호계』, 문화와 지성사, 2008.
- 이수자, 『큰굿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5.
-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5~42쪽.
- 최성실, 「동아시아 ‘바리데기’이야기의 구조와 공간적 의미에 관한 연구」, 『비교문학』 67, 한국비교문학학회, 2015, 356~386쪽.
-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황인순, 「제주도 본풀이의 공간구조와 의미연구 :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32, 한국기호학회, 2012, 85~114쪽.

An analysis of Myth text with a spatial modeling theory :

With focus on *Samgong-bonpuri*, *Segeong-bonpuri*,

Samsunghalmang-bonpuri

Kim, Sinjeong

In this paper, I attempt to read myths with a spatial modeling theory and to offer a mythological world view. There are spatial models which are composed of interior area, external area, in-between area in myths.

This study regards a main figure as an area by adding a figures' discourse, her action, her place which had stayed, while moving direction.

Samgong-bonpuri's heroin, Gamunjang is decided to an in-between area where cut two areas and finally she wins human's world(interior area) over to god's world(external area) by combining external area. *Segeong-bonpuri*'s heroin, Jacheongbi is decided to an in-between area. This character makes several trips between an interior area and an in-between area. As the coming and going action makes an in-between area for an external area, she also wins human's world(interior area) over to god's world(external area) by combining an external area. *Samsunghalmang-bonpuri*'s two main characters, Donghaehalmuni and Mengjnguk, are beings under an external area. They extend an interior's view to external world by combining an interior area.

Both interior area and external area are under different level in *Samgong-bonpuri*, *Segeong-bonpuri* and same level each other in *Samsunghalmang-bonpuri*. It means that the former two myths are textured by mythological world view of great respect about god's power. The latter is textured by mythological world view of feeling affinity. The contrast is drawn in two types of thinking about god's world and both types of texts are able to make Myth. Myth is not an origin but lots of text themselves.

Keywords : myth, spatial modeling theory, interior area, external area, in-between area, mythological world view

투고일 : 2017. 02. 20. / 심사일 : 2017. 02. 27. / 심사완료일 : 2017. 03. 06.

